

서울YWCA

20240708 | Vol.631

“ 깨끗한
대학 캠퍼스를 위해
그린라이프를
실천해 보아요 ”

2024 시민걷기축제

우리 **같이** 걸을까요?
가치

생태적으로 읽는 누가복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로드맵

환대 캠페인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환대의 작은 숲”이 필요하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이
후
다

예술과 삶

포장의 대가
대지미술가 크리스토·잔 클로드 부부



사단법인
서울YWCA

대학 캠퍼스에서
Green Life
Right Benefit

대학은 학문을 익히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캠퍼스 안에서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배달음식 주문으로 인한
일회용품 쓰레기가 넘쳐난다면, 곤란하겠죠?
깨끗한 캠퍼스를 위해 함께 실천해 보아요.



Green Life
함께 실천해요!

학교 식당에서

- 먹을 때 최대한 남기지 않기
- 버려지는 음식이 없도록 ‘조금 덜 주세요’라고 말하기
- 주 1회 채식의 날 제안하기

카페에서

- 텀블러 사용하기
- 빨대 없이 or 스테인리스 빨대 이용하기



Green Right
함께 누려요!

‘즐거운 불편’으로 깨끗한 캠퍼스 만들기

- 배달음식 용기 깨끗이 씻어 분리배출하기
- 일회용 젓가락 대신 휴대용 수저 가지고 다니기
- 비닐 쓰레기 줄이기 위한 에코백 사용하기
- 담배꽂초 쓰레기통에 제대로 버리기
- 쓰레기 줄임 캠페인 도전하기

캠퍼스 내 녹지공간 늘리기

-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함께 돌보기
- 나무 · 식물 심기 캠페인 전개하기



Green Benefit
함께 나눠요!

소비 줄이기

-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물품을 사고파는 중고장터 열기
- 하루 동안 ‘만원의 행복’ 챌린지 하기

빈병 보증금제 적극 활용하기

- 우유팩, 플라스틱 · 유리병 빈 용기 무인회수기 설치 학교에 요청하기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 평화 ·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YWCA
2024년 7·8월호 | 631호

7월 공동기도

녹색 생명력의 하나님, 세상이 온통 초록 생명력으로 풍성합니다.
값없이 주신 이 상긋한 생명의 기운을 깊이 들이마시고, 반년을 가쁘게 달려온
우리의 분주한 몸과 마음을 푸르른 생기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비리디타스(viriditas, 녹색 생명력)를 되치며 힘을 얻었던 중세 여성신비가
힐데가르트처럼, 우리도 다시 생명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아멘

8월 공동기도

치유의 하나님, 스스로 그러하도록 잘 지어놓으신 자연이 점점 제 모습을
잃어갑니다. 산은 불타고 빙하는 녹고 하늘은 눈물처럼 폭우를 쏟아내며
신음합니다. 자연의 몸부림에 인간도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로 잠잠히 기도하며 다시 창조 질서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의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서울YWCA〉 2024년 7·8월호 통권 제631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4년 7월 1일 발행인 조연신 편집인 김양선 편집위원장 전영지 편집위원 김유애 이재숙 인 미 조희수 최문희 최혜란 황정혜 편집 민혜경 성지희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2	즐거운 불편운동 대학 캠퍼스에서 Green Life, Green Right, Green Benefit
4	현대 캠페인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현대의 작은 숲”이 필요하다
6	녹색의 눈으로 읽는 성경 ④ 생태적으로 읽는 누가복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로드맵
8	Y이슈 2024 기독교시민아카데미
10	현장 속으로 2024 시민견기촉제 Y-틴, 대학 · 청년YWCA 연합인준식 HERizon : 차세대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16	예술과 삶 포장의 대가 대지미술가 크리스토 · 잔 클로드 부부
18	서울Y 소식 5 · 6월 뉴스 7 · 8월 행사 안내 7 · 8월 캘린더
24	미디어 모니터링 평등하고 다양하며 포용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꿈꾸며
26	후원 소식
29	라운드 테이블 개인주의자에게도 공동체는 필요해
30	알림터
32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이효덕, 독립운동가 · 여성운동가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환대의 작은 숲”이 필요하다



이승훈
「도시의 양육자」 저자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센터장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린이가 있다

<리틀 포레스트>는 임순례 감독이 연출한 김태리(극중 혜원) 주연의 영화다. 영화에서 혜원의 엄마는 혜원이 수능시험을 치른 날 집을 나가고 사라진다. 그 후 혜원은 고향을 떠나 도시에 서 생활하다 팍팍한 생활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온다. 혜원은 지난 추억들을 하나, 둘 떠올려 가며 음식을 만들어 먹고, 고향 친구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면서 점점 회복해간다. 혜원에게서 엄마는 떠났지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고향으로서 작은 숲(리틀 포레스트)은 혜원에게 힘이 된다.

도시생활에 지쳐 쓰러져도, 나를 돌봐줄 엄마가 없어도 돌아갈 작은 숲이 있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인간은 마음속 깊은 곳에 어린이가 있다. 누구나 따뜻한 작은 숲이 필요하다. 성장하며 자신을 온전히 품어주고 환대해주는 친구와 이웃이 있는 곳,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에서의 경험과 추억은 살아가는 데 힘이 된다. 어릴 적 이런 기억은 한 사람 속에 튼튼하게 뿌리 내려 삶의 또 다른 기준이 되고, 안정감을 준다. 남과 나를 쉽게 비교하는 경쟁 사회에서 시들어버리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준다.

영화에서 혜원과 엄마는 평상에 앉아 토마토를 맛있게 베어 먹는다. 그리고 엄마는 토마토 꼭지를 발 가운데로 던져 버린다.

“저렇게 던져놔도 내년에 토마토가 열리더라.” 혜원 엄마의 이야기다.

부모와 자녀는 영원히 한곳에 함께 머물 수 없다. 부모는 자녀를 품에서 보내주어야 하고 자녀도 부모로부터 마음과 몸의 독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부모들은 아이의 앞날 걱정 때문에 혜원 엄마처럼 할 수 없다. 자녀를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없다. 부모는 사실 영원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떠나지 못하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엄마, 어디로 취업해야 할까요?” “결혼할까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묻는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완벽한 양육만이 아니라 더 넓은

사람과의 만남과 연결이 필요하다. 도시의 사람들은 빠른 속도 내 달리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콘크리트 빌딩과 아스팔트 바닥, 도시의 소음과 꺼지지 않는 불빛,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각자도생 시대. 관계가 점점 약화되는 문제는 전 지구적이다. 일본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일본은 아이들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마을 이웃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한 달에 한번이라도 문을 여는 어린이식당 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온다. 또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가고 싶다”, “머물고 싶다”, “해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비교, 경쟁, 평가 없이 자유로운 공간 <이바쇼>만 들기가 한창이다.

마을의 양육자가 되어 변화의 숲을 만들자

서태지의 노래 「교실 이데아」를 목 놓아 부르고,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함께 보며 감동하던 사람들이 양육자가 되었다. 그러나 교육은 바뀌지 않고,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시험 경쟁에 빠져있다. 불안한 양육자들은 무물쭈물 하다가는 늦어버릴 거라는 것을 알기에 좀 더 일찍 영어유치원, 명문 학원과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있다.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닌 아이들을 환대로 맞이해주는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없다. 공간이 있다고 해도 머물 시간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우정을 나눌 친구, 존경하는 선생님, 다정한 이웃을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나는 2010년 노원구가 설립한 청소년시설인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줄여서 ‘공터’라 부른다)의 운영자로 선발되었다. 이곳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청소년활동을 하며, 경험과 개성을 살려 자신의 나이테를 만들어가는 곳이다. 공터의 문을 열면서 나는 이곳을 아이들의 ‘애착의 기지’로 만들고 싶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양육자와 애착의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만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좀 더 많은 사람, 다양한 공간과 관계 맺으며 자신

의 세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때 자신의 추억 속에 따뜻하게 기억되는 공간이 있다면 삶은 풍성해진다. 공터에서 활동하며 자란 아이들은 다른 곳에 이사 간 후에도 한 번씩 찾아온다. 제대를 하고, 취업을 하고, 유학을 가고, 가끔은 퇴사를 결심하고도 찾아온다. 힘들 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맞이해준 그리운 이곳을 상상하며 살아왔다고 말한다.

“선생님 제가 이곳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많이 바뀌었지만 어릴 적 추억이 그대로 생각나요.”

“선생님 저 곧 의사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안 멋진 것 같아요.

동네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 하던

중학생 때는 제법 멋졌는데요.”

자신이 만들어지고, 자신의 일부가 되는 이 작은 숲은 이 시대 모든 아이들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해졌다. 도시의 어른들은 자신의 자녀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 마을의 양육자가 되어, 아이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숲을 만들자. 방과 후에는 아이들에게 그 숲에 갈 시간을 주자. 아이들을 작은 숲으로 초대하고, 환대로 맞이해보자. ♡



자신이 만들어지고, 자신의 일부가 되는 이 작은 숲은 이 시대 모든 아이들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해졌다. 방과 후에는 아이들에게 그 숲에 갈 시간을 주자. 아이들을 작은 숲으로 초대하고, 환대로 맞이해보자.

기후위기시대, 생태정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고
성서 속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신앙적 응답을 찾아봅니다

생태적으로 읽는 누가복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로드맵



최광선
덕신교회 담임목사

기후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희망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희망은 우리가 함께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용기와 헌신이 필요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에서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로드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라보라, 지각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사랑하라”입니다.

바라보라

누가복음 24:13-17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가와 동행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퍼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슬픔을 직면하게 합니다. 생태적 관계의 중심에는 바라봄(응시,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음하는 피조물의 슬픔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후 절망의 시대에 가난한 이들과 멸종 위기의 피조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 **바라보라** 지구 온도 1.2℃ 상승, 이산화탄소 수치 424ppm, 생명의 여섯 번째 대멸종, 가뭄, 산불, 홍수, 해일, 사막화, 담수호 사라짐, 열대우림 파괴, 빙하 녹음, 농경지 감소, 전염병 창궐, 기후난민, 해양오염 등을 직시하라

지각하라

누가복음 24:18-24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절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예루살렘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인류는 기후위기를 초래한 행동을 계속하면서 생태적 종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초한 기후위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지구 가열화와 파괴적 행동을 지속하는 맥락을 차가운 이성으로 자각해야 합니다.

* **지각하라** 탐욕을 극대화시키는 정치, 경제, 대학, 종교시스템, 인간중심적 문명, 악탈적 상업-다국적 자본주의, 이원론적이며 기계적 세계관, 파괴를 자각하지 못하는 집단적 광기 등을 지각하라

기도하라

누가복음 24:25-32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은 무엇 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복음은 예배 안에서 말씀과 성찬의 전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의 시간일수록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기도’라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자신을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지구가열화와 생명 파괴 현상은 인간중심적인 정치나 경제, 과학이나 기술에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자리는 기도입니다.

* **기도하라** 기후절망의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태적 희망을 제공하는가? 생태적 죄악을 인식하고 있는가? 생태절망의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구원이 되는가? 생태파괴를 일으킨 성경 읽기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가? 새로운 성경읽기를 배우고 있는가? 교회는 창조세계와 맺는 관계를 재설정하고 있는가? 등의 주제를 놓고 기도하라



사랑하라

누가복음 24:33-35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큰 틀에서 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뿌리에 사랑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은 동사며,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많이 사랑하는 쪽이 먼저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생태적 헌신의 기준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생태적 약자와 다음세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사랑하라** 생태적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 관계, 피조세계와 관계, 제자도, 생태정의, 그리스도인의 생태적 삶과 태도, 기후난민, 신음하는 피조물 등을 위해 헌신하라

생태적 희망의 노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절망과 두려움을 희망과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부활은 희망의 근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인생에서 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지만, 그 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생태적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

* 다음 호에서는 요한복음을 생태적 시선으로 읽고자 합니다. 요한의 프롤로그와 부활한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정원사 그리스도를 따라가봅니다.

최광선 박사는 생태중심도시 순천에 있는 덕신교회 담임목사다. 그는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기에 자연은 벗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경이라 말한다.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위기에 처한 오늘의 현실을 아파하며 예수께 길을 묻는 구도자이기도 하다. 토론토대학교 신학부에서 생태영성을 전공(Ph.D)했다. 공저로 '지구 정원사 예수'가 있다.

각자도생 사회에서 공존의 길을 묻는다

2024 기독교시민아카데미

2022년부터 매해 열고 있는 서울Y 기독교시민아카데미!

기독교시민아카데미는, 기독교민을 위한 '시민사회처음학교'를 콘셉트로

다양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크리스천이자 시민으로 살아가는 기독교민이
개인의 영성을 넘어 사회적 영성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기획됐다.

올해는 '각자도생 사회에서 공존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6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됐다.

서울Y 회관 마루에서 현장 강의와 함께 유튜브라이브로도 생중계된

2024 기독교시민아카데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강 디지털 시대의 능력주의 그리고 외로움



김만권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외로움의 습격」 저자

‘외롭다 lonely’라는 표현은 셰익스피어의 책 「코리올레이너스(1608년작)」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17세기에나 등장한 ‘외로움’은 사회 변화와 함께 생겨난 감정인데 최근 그야말로 ‘외로움의 습격’으로, 영국은 ‘외로움부’를 신설(2018), 일본은 ‘고독부 장관’을 임명(2021) 했다.

외로움은 관계의 단절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타자의 상실을,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자아의 상실을, 세계 속에 존재하는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세계의 상실을 의미한다. 외로워진다는 말은 결국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사라진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외로운 시대의 원인은 ‘디지털’과 ‘능력주의’다. 다니엘 마코비츠 교수(예일대)는 책 「능력주의의 함정(국내 번역본 ‘엘리트 세습’)」에서 능력의 상속 구조를 명확히 밝힌다. 능력주의가 노력주의가 되면 밀려난 자는 게으른 자로 낙인찍히고, 사회적 도움 요청 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세력으로 치부될 수 있다. 결국 능력주의 사회는 사회적 도움이 부재한 곳이 되어버린다.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라고 말하는 사회에서는 젊을수록, 가난할수록, 혼자 살수록 점점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

외로움의 해결을 위해서는 ‘돌봄’과 ‘경청’이 중요하다. 돌봄은 전 세대에 걸쳐 필요한 것이며, 사회의 안전을 돌보는 일이라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경청을 위한 제도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2강 능력주의와 공존 없는 공정

흔히 말하는 ‘능력’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 능력주의 안에는 엄청난 차별이 내면화되어 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출발점에만 서 있으면 공정할까. 차별에 눈 감고 있는 사조인 능력주의가 팽배해진 사회에서는 배고픔에 대한 정책적 개입에 분노하며 배고픈 사람에 대해 혐오를 품게 만든다. 자본에는 유리하고 노동에는 불리한 ‘신자유주의’와 ‘능력주의’가 만나면 ‘자기책임론’으로 빠지기 쉽다.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를 겪는 것이, 개인 각자의 책임이라고만 생각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승자독식, 자발적 경쟁, 개인 책임 등 현대사회의 문제를 여과 없이 담아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왜 ‘all or nothing’이 아닌, 다 같이 나누어 갖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가. 공존 중심의 민주주의 교육이 결여된 사회는 결국 ‘혐오 괴물’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사회적 소수자’는 그 수가 적어서 소수자가 아니다. 의무는 당연하게 이행하면서도 부당하게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사람이다. 결국 우리 모두는 소수자일 수 있다. ‘공존’은 자기 안의 소수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성찰을 통해 우리 모두가 소수자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공존을 위한 공정이 가능하다. 공존 없는 공정은 결국 이기주의일 뿐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타인과의 연대’일 것이다.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공정감각」 저자

3강 살아내고 살려내는 ‘사이’ 공동체



백소영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살아내고 살려내고」 저자

우리 사회가 ‘메리트크라시(Meritocracy)’로 전환됐다. 메리트(Merit)를 강조하는 이 말은 결국 ‘능력주의’와 일맥상통한다. 개개인이 그야말로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자신을 끊임없이 업데이팅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공동체를 꿈꿀 수 있을까.

‘시민市民’은 공간의 의미를 지니며 누구나 평등한 존재임을 강조한다. 반대로 ‘신민臣民’은 상하 관계를 드러낸다. 신민만이 존재했던 시절,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선포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이자 ‘시민’이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총만하리’ ‘다스리라’에는, 먼저 ‘너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생명력 있게 살아내고, 그 힘으로 다른 이를 정복하는 것이 아닌 ‘그냥 두면 죽어갈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뜻이 담겨있다. 이 개념은 사도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카이 알렐론 Kai allelon’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각자 지음 받은 다양한 모습대로 ‘서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라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내고(존재명령) 살려내라(구원명령)’는 사람의 원칙을 지켜갈 수 있다.

개인의 영성과 사회적 영성은 범주의 분류로서가 아닌 단계적인 의미로 봐야 한다. 하나님을 들이마시는 들숨 후에 날숨으로 이웃에 대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사회적 영성’이다. 자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사회적 영성을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기독교민으로서 이웃의 날숨을 포착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
기독교시민아카데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Y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시민걷기축제

우리 **같이** 가치 **가치** 걸을까요?

서울Y는 5월 11일 2024 서울Y 시민걷기축제를 남산 백범광장에서 개최했다.

‘우리 같이/가치 걸을까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걷기축제는 시민이 ‘같이’ 걸으며 서울Y가 추구하는 ‘가치’인 정의·평화·생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특별히 지난해 참가 기념품인 하늘색 손수건을 재사용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며 생명의 가치를 되새겼다. 남산순환로 걷기를 비롯해 여러 부스 체험, 기념꾸러미 증정, 행운권 추첨 등 풍성한 즐길 거리가 흥을 더했다. 2000년에 시작되어 스무 해가 넘도록 사랑받고 있는 서울Y 걷기축제. 내년에는 보다 많은 회원과 시민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개회선언하는 이지선 걷기대회준비위원장



“생태여성주의도 알아보고 바디스티커로 축제 분위기도 업!”



올해도 완주는 나의 것!



“서울Y와 SNS 친구 맺고 스타벅스 커피 마셔요~”

걷기 코스를 마치고 돌아온 회원과 시민을 위한 특별 이벤트! 스타벅스 파트너가 직접 봉사자로 나서 서울Y SNS 친구에게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선물합니다.



내년에도 아름다운 봄날에 서울Y와 함께 걸어요~



“행운권 당첨을 축하합니다”

걸으며 쓰레기도 주워요.
플로깅 봉사를 실천하는
우리는 Y-틴입니다



Y-틴, 대학·청년YWCA 연합인준식

서울Y는 5월 18일 '2024 Y-틴, 대학·청년YWCA 연합인준식'을 회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이번 연합인준식에는 8개의 Y-틴 동아리와 7개의 대학·청년YWCA 동아리, 청년지도자, Y-틴 지도교사, 따뜻한나무장학회 등 130여 명이 참여했다.



연합인준식은 문신환 청소년운동팀 간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청소년팀 소개 영상'이 그 시작을 알렸다. 석예림 Y-틴(이화미디어고) 회원의 재능기부로 완성된 영상은 서울Y 청(소)년 운동 소개를 비롯해 동아리별 셀프 소개 영상이 담겨 있어 서로를 환대하는 따뜻한 분위기를 선물했다.

여는 예배에서 송진순 목사(이화여대 대학교회)는 마가복음 4장 30-32절을 바탕으로 '혐오와 갈등을 넘어 공존과 상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 열심히 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냐?" 자본에 따른 서열화, 인간을 상품화하는 문화에 젖어 우리도 혐오와 차별, 경쟁, 배제를 당연시하며 스스로를, 또 타인을 재단하고 있지는 않은 지 반문케 했다. 참깨만 한 겨자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그



배정미 청소년팀 위원장(가운데)에게 임명장을 받은 고하은 대학·청년YWCA협의회 회장과 임서현 Y-틴협의회 회장(왼쪽부터)



장학증서를 들고 있는 청(소)년 회원들 (왼쪽부터 서종학 소리모아 회장, 김도연 그린Y 회장, 임승준 올릭Y-틴 부회장, 석예림 온새미로 회원)과 함께한 '따뜻한나무장학회' 김영준 후원자

가지에 날아드는 것처럼, 서울Y 청(소)년이 예수님처럼 주류의 선을 넘어 기존의 가치에 도전하고 다른 존재와 연대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정의와 평화의 비전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했다. 이어서 영란여중 Y-틴의 워십과 대학·청년YWCA 동아리 '소리모아'의 축하공연이 은혜와 감동을 전했다.

"YWCA 목적을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하는 회원 선서를 모두가 함께했다. 이후로 인준장, 임명장, 위촉장, 장학증서, 표창장 수여가 격려와 축하 속에서 계속됐다. 특별히 서울Y 해외 청년봉사단 활동을 인연으로 결성된 '따뜻한 나무장학회' 선배가 올해도 직접 참석해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서울Y 청(소)년을 격려해 그 의미를 더했다.

2부에는 '나의 길을 찾아서 : Connect the Dots'라는 주제로 하유진

교수(고려대 심리학부 겸임, 하유진심리과학연구소 대표)의 비전 특강

이 펼쳐졌다. 진로 고민으로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나의 길은 내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소리(inner voice)'를 듣는 연습을 하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알기 위해 공부와 독서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세상 속 자신의 필요와 역할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조언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성장하는 것은 분명 다르며 강조하며 작년보다 나아진 것은 무엇인지 늘 자신의 성장을 돌아보며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2024 연합인준식은 각자의 활동을 넘어 서울Y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응원하고 격려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를 계기로 Y-틴과 대학·청년YWCA 회원들이 Y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고 정의·평화·생명의 가치 아래 세상의 필요에 응답하는 리더로 성장해 나가기 기대한다. Y 정리_문신환 청소년팀 간사



영란여중 Y-틴 워십 'Like you Love me'



비전특강 하유진 교수



허라이즌에게 격려와 지원을 전하는
① 조연신 회장
②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
③ 5월 17일 진행된
HERizon 클로징 세리머니

서울Y는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1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HERizon(허라이즌): 차세대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했다.

허라이즌은 리더십에 관한 자기 이해와 젠더 관점으로 직업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리더십 코칭 세션’, 실제 적용 가능한 리더십 스킬을 체득할 수 있는 ‘리더십 워크숍’, 여성·지역 간 리더십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네트워킹 이벤트’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젠더 관점에서 여성 리더십을 바라보는 새로운 경험”, “경험 공유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여성 리더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세울 수 있는 계기”라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여성들이 한계를 넘어 다양성과 포용성의 리더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된 ‘허라이즌’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1강_ 다양성과 포용성의 리더십

송진순 이화여대 외래 교수

한국은 전 세계 146개국 중 ‘성 격차 지수’ 105위(2023)로, 여성의 정치적·경제적 대표성이 매우 낮다. 기존의 수직적 리더십이 아닌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수평적 리더십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수평적 리더십은 희생과 헌신이 아닌 리더와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로의 지평을 넓힌다.

2강_ 자기효능감을 확인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신지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심리전문가

자기효능감은 직장인 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도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향해 언어적으로 설득하고, 긍정적 정서 반응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3-4강_ 변화의 길을 찾아서

최김하나 인권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김승주 지마린서비스 일동항해사

성평등 리더십은 여성 리더라고 해서 반드시 담보되는 것이 아니며, 끊임없는 성찰과 실천으로 확보된다. 성차별이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차별, 여성혐오 발언에 동조하지 않기, 직장 내 성평등 관련 이슈에 관심 갖기 등을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다.

5-6강_ 지속 가능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양세진 소설이노베이션그룹 대표

직장 내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주제들을 직면하기란 쉽지 않다. 이때 상호이해지향 대화와 무비판적이고, 수용적인 대화 방식은 조직 내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게 만든다.

7강_ 미디어와 함께하는 리더십 스킬 및 전략 멘토링 워크숍

이자연 기자 씨네21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허니제이,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의 ‘지소’와 같은 캐릭터는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 리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리더’다. 미디어 속 다양한 리더상에 나의 리더십을 대입해 보는 전략은 자신의 리더십 성향과 방향성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다.

8강_ 내 삶의 균형 잡기 : 워라벨, 번아웃 관리 스킬

신지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임상심리전문가

번아웃은 인간 영혼을 침식하는 마음의 출혈 상태로 리더십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의 지속을 어렵게 한다. 번아웃 관리를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자기 친절’, 자신의 감정과 자신을 분리하여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의 태도가 필요하다.

9강_ 글로벌 리더십과 공존

이부연 주한미국대사관 외교관 글로벌정책 담당

한국 여성은 자기 스스로를 리더라고 여기는가.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미국 정부의 외교 분야에서는 동일한 직급의 여성과 남성이 있을 경우 여성이 먼저 명함을 공유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 정리_이지은 국제협력팀 간사



포장의 대가 대지미술가 크리스토·잔 클로드 부부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후마니타스아카데미 원장



「둘러싸인 섬들」 프로젝트 드로잉 앞에서
크리스토와 잔 클로드
1980년 경

대지미술은 1960년대에 시작된 미술 사조로 기존의 전시 공간에서 탈피하여 자연경관과 작품이 통합되는 거대한 스케일의 작품들이 주를 이루어 장소 특정적 성격을 띤다. 대지미술가들은 작품의 상품화에 반기를 들지만 정작 작품의 실현에는 많은 인원과 자금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과 후원이 필수다. 그러다 보니 작품으로 완성되는 데에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작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던가 항공 망원경으로 관찰하거나 드론으로 작품을 찍어야 한다.

비밀 연애와 결혼

크리스토(Christo Vladimirov Javacheff)는 헝가리 가브로바에서 제조업을 하던 아버지와 소피아 국립미술아카데미 학장의 비서였던 어머니의 아들로 1935년 6월 15일 태어났다. 공교롭게도 그의 부인 잔 클로드(Jean-Claude) 역시 같은 날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프랑스 군인가족으로 태어났다. 우연이 운명으로 연결된 것인지 두 사람은 훗날 부부가 된다. 크리스토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미술공부를 하고 파리로 간 뒤, 1958년 그곳에서 잔 클로드 어머니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면서 잔 클로드와 비밀 연애를 시작한다. 잔 클로드는 대학 졸업 후 에어 프랑스 승무원으로 훈련을 받다 1959년 옛 연인과 결혼하지만 이내 이혼하고 1962년 크리스토와 결혼해 평생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공동으로 예술작업을 하게 된다. 두 사람은 1962년 베를린 장벽에 대한 저항으로 204개의 휘발유통을 쌓아 거리를 막으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공동작가로서의 부부

크리스토는 초기에 잡지, 전화기, 소파, 오토바이 등을 천으로 포장하고 노끈으로 이리저리 자유롭게 묶는 작업을 했다. 한번은 크리스토가 백남준에게 피아노를 빌

려 다시 흰 천과 끈으로 포장해 돌려줬다. 훗날 백남준은 크리스토가 유명해지자 두 거장의 초기 협업작품이 수백만 달러는 됐을 텐데 크리스토의 피아노 포장을 다 건어낸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크리스토 부부는 일체의 장학금이나 기부, 공적 후원 등을 거부하고 스스로 작품을 팔아 작업하는 것을 고수했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작가의 인지도를 높이며 거래를 단순화하기 위해 크리스토의 이름으로만 사인해 왔다. 그러다 대형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하며 두 사람은 공동작가로서 공식화되었다. 두 사람은 점차 공공건물이나 기념물을 포장하고 자연환경의 일정 부분을 흰색, 은색, 노랑, 주황, 분홍 등의 천으로 감싸거나 협곡에 커튼을 치던가 공원 전체에 파란 우산이나 노란 깃발을 꽂는 작업 등을 했다. 이러한 대지미술의 아이디어는 기술적 고민뿐만 아니라 정치적 협상, 환경승인, 청문회, 대중 설득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년에서 수십 년의 준비 기간이 걸리기도 했다. 또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 복구해야 해서 작품은 사진으로만 남게 되고, 프로젝트 계획 드로잉, 콜라주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포장된 독일의회의사당」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이애미 비스캐인 만의 11개 섬을 분홍 천으로 둘러친 「둘러싸인 섬들(Surrounded Islands)」

은 1980년부터 시작돼 1983년에 실현된 작품이다. 작업 전 이 섬에는 대형 쓰레기 더미가 넘쳐났는데 크리스토는 사비를 들여 40톤의 쓰레기를 처리했고, 물 새들이 동우리를 틀고 군생하는 4개의 섬은 최초의 계획에서 제외시켰다. 크리스토 부부는 430명의 인원을 동원해 작품을 설치했으며, 작품을 본 사람들은 마이애미 섬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재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포장된 독일의회의사당(Wrapped Reichstag)」은 1971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로, 1990년 독일이 통일되고 난 5년 후 독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1995년 6월 24일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선보인 작품이다. 독일로서는 통일 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예술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는 문화 이벤트였으며, 의사당을 포장했던 은빛 특수 천은 프로젝트가 끝나자 오려서 판매됨으로써 설치미술의 판매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보여준 작품이기도 했다.

부부라는 사랑의 연결성을 넘어 예술적으로 승화된 삶으로까지 함께했던 잔 클로드가 2009년 뇌동맥류로 먼저 세상을 떠나자 크리스토 자바체프는 “크리스토와 잔 클로드의 예술은 계속된다”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함께 계획했던 프로젝트들을 실현시켜 나갔다. 그러다 그는 2020년 5월 31일 미국 뉴욕 자택에서 아내 곁으로 돌아갔다. Y



「포장된 독일의회의사당」
1995. 6. 24-7. 8
101년 역사를 가진 베를린 국회의사당 건물을 10만㎡의 특수 제작된 은색 합성섬유로 감싸고 16km 길이에 이르는 푸른색 밧줄로 동여맸다

강남역 여성 혐오범죄 8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



서울Y는 강남역 여성혐오 범죄 8주기를 맞아 5월 23일 여성주의연합예배를 회관 대강당에서 드렸다. 서울Y를 비롯한 29개의 기독교여성주의 단체가 공동주최한 이 예배에는 180여 명이 참석했다. 여성주의연합예배는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여성혐오 범죄 피해자를 추모를 넘어 여성 혐오, 차별,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우리 사회가 강남역 사건을 기억하고 함께 연대하며,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한다.

2024 신입위원 교육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마다 서울Y가 있었네요.

앞으로 계속될 Y 역사에 작은 돌맹이만큼이라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울Y는 4월 26일 2024 신입위원 교육을 회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11명의 신입위원은 YWCA 목적과 정체성, 역사에 대해 배우며 본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서 비전과 사업을 공유하고 각 위원회별 활동도 자세히 알아봤다. 특히 조종남 증경회장과 함께한 선배와의 만남은 울림을 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Y 새로운 100년의 주인공이 될 신입위원의 생명력 넘치는 활약을 기대한다.



노원

현장실습 매칭데이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6월 18일 인덕대학교에서 열린 '표준현장실습 매칭데이'에 참가했다. 매칭을 희망하는 20개 업체와 멀티미디어디자인과를 중심으로 재학생 50여 명이 함께했다.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구직자 발굴과 취업상담, 경력단절예방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구직신청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리봄

계절 김치 배분

누리봄은 5월 29일 주거지원 주택과 컴퓨터 열무김치(140kg)를 배분했다. 이번 김치는 관악구여성단체협의회와 적십자사 남부적십자봉사관의 지원으로 마련된 것으로, 식재료와 채소값 급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리봄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에 입맛을 돋우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물이었다.



영등포

사회복지행정사무원 개강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5월 3일 사회복지행정사무원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은 7월 12일까지 실무 중심의 훈련을 받는다. 교육 이수 후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인력 수요 증가로 주간보호센터, 재가요양기관, 시니어클럽 등으로의 맞춤형 취업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봉천

어린이날 '같이놀장(場)'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5월 4일 '같이놀장(場)'을 복지관 앞마당에서 열었다. 청년봉사단 'AYUDA', 대학생 서포터즈 '욕심단', 송실대 봉사동아리 '어리회', 서울대첨단융합학부, 사단법인 '늘품가치', 사회적협동조합 '다울', '미스터피자 서울대점'이 함께해 힘을 더했다. 26개에 이르는 다양한 놀이·체험·간식 부스가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어린이와 주민 450여 명이 참여했다.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대해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강남

청소년어울림마당 '세계문화축제'

강남청소년수련관은 5월 18일 강남구 청소년어울림마당 '세계문화축제'를 수련관에서 열었다. 어린이·청소년·지역주민 3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축제는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을 기념해 스페인, 중국, 인도, 프랑스 4개국 원어민과 함께했다. 나라별 인사말을 배워보고 각국의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다.

세계문화축제를 통해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과 글로벌 창의력이 증진되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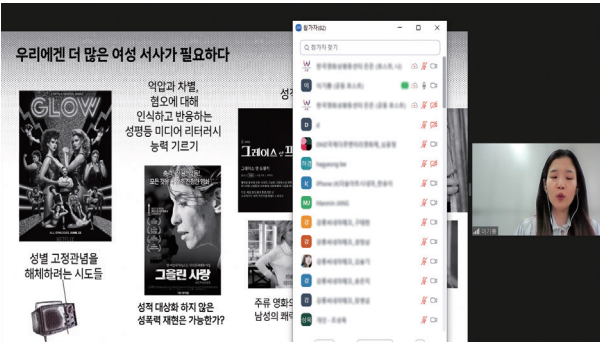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리더십 특강



서울Y는 6월 4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리더십 특강을 회관 대강당에서 열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친환경 기업 유한킴벌리 진재승 대표이사를 특별 강사로 초청해 ‘유한킴벌리 사례로 보는 ESG 경영과 리더십’을 주제로 함께했다. 진 대표이사는 ‘GT 프로젝트’, ‘직원경험본부’, ‘그린 액션 얼라이언스’ 등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실천을 강조했다.

영상산업 내 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서울Y는 5월 30일 영상산업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서 주최한 것으로, 이기쁨 여성운동팀 활동가가 특별 강사로 초청됐다. 영화계 종사자와 제작자 80여 명이 참여해 ‘OTT 시리즈의 성차별적 재현’ 사례를 살펴보고 성평등적 재현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신규 교육프로그램

영등포

• 문의 02-858-4514 (내선1번)

과정명	교육일정
스마트스토어팜 (네이버스토어+아마존) 양성과정	7월 23일(화)~9월 10일(화) 월~금 9:30~13:30 [직종설명회] 7월 5일(금) 14:00

- **대상** 온라인 창업준비자, 인터넷쇼핑몰 MD나 홈페이지 관리 등 관련 분야 취업희망 여성
- **교육비** 국비 지원 (훈련생 자부담 10만원 : 수료 시 5만원, 취업 시 5만원 환급) 전문직업상담사의 1:1 취업상담 지원 새일여성인턴제 참여 기회 제공

노원

• 문의 02-951-0187

과정명	교육일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경력자)	7월 8일(월)~7월 19일(금) (월~금) 14:00~18:00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 (사회복지사 대상)	8월 20일(화)~10월 15일(화) (화목) 19:00~22:00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 (신규)	8월 26일(월)~10월 25일(금) (월~금) 9:00~18:00

- **신청** 홈페이지 접수

스포츠센터

‘기구(리포머) 필라테스’ 강습

필라테스는 바른 자세로의 교정과 재활 등을 목적으로 신체 근력과 유연성을 발달시키는 운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Y 홈페이지 스포츠센터 게시판에서 확인)

- **강습 안내** 주 2회(월·수, 화·목) : 154,000원
주 1회(금) : 80,000원
- **문의** 02-3705-6030

서울Y 회원 동아리원을 모집합니다

서울Y 회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ⅢⅢⅢ 극단 축

창의적인 여가 문화생활 영위와 연극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을 하는 극단 축에 서울Y 회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14:00
- **신청 대상** 연극에 뜻이 있는 서울Y 회원 누구나
- **문의** 경규선 단장 010-8909-2901

ⅢⅢⅢ YWCA 합창단

아름다운 노래와 성가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역사 깊은 YWCA 합창단의 단원이 되어보세요

- **모임 시간** 매주 금요일 13:00
- **신청 대상** 노래와 합창을 사랑하는 서울Y 회원 누구나
- **문의** 김희순 단장 010-3687-9647

CALENDAR 2024 7

월	화	수	목	금	토
1 · 명예위원모임 11:00	2 위원회 재정부 11:00 ·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 정기모임(16일) 19:00	3 · 청년커뮤니티 은하수 20:00	4 위원회 큰장날준비 14:00	5	6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매주 토) 10:00
8 · 역대이사모임 11:00	9 돌봄회원 신입교육 가사돌보미 10:00 · 이사회 · 정책워크숍 9:00	10	11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 씽크머니 경제 · 금융 교육(구로중) 13:00	12	13 · 그린Y(27일) 10:00 · 키다리학교(27일) 10:00
15	16 위원회 누리봄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시설운영사업팀 11:00 청소년팀 11:00 노원Y 12:30	17 제헌절 위원회 영등포Y 11:00 회원활동팀 11:00	18 위원회 여성능력개발팀 11:00	19 위원회 강남Y 11:00 · 그린Y '기후위기와 인권' 교육(경기여고 Y-틴) 13:00	20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청년평화통일기획단 피스톡톡 10:00 · 울력 11:00 · 청소년 평화아카데미 13:00
22 위원회 선거제도개선 10:00 봉천Y 11:00	23	24 · 온새미로 12:00	25	26 위원회 평생체육팀 11:00	27 · 은하수 Y-틴 멘토링 10:00 · 소리모아 38회 정기공연 18:00
29	30	31			

CALENDAR 2024 8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 씽크머니(17일) 13:00
5 · Y-틴 전국회원대회 (~6일)	6 · 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 정기모임 (20일) 19:00	7	8	9 · 서울Y-안산Y 키다리학교 연대 모임	10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24일) 10:00 · 그린Y(24일) 10:00 · 키다리학교 10:00 · 온새미로 13:00
12	13	14	15 광복절	16 · 그린Y '기후위기와 인권' 교육(경기여고 Y-틴) 13:00	17 · 청년평화통일기획단 피스톡톡 10:00 · 울력 11:00 · 청소년 평화아카데미 13:00
19	20 위원회 홍보출판팀 11:00	21	22 돌봄회원 신입교육 간병사 10:00	23	24 · 온새미로 12:00
26	27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28	29	30	31

평등하고 다양하며 포용적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꿈꾸며

평등한 공론장으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기능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으로
윤리적 규정들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질문
역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 대상
2024년 1월 - 5월 작성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트래픽 순위 상위 7곳의
게시글 2100건과
댓글(similarweb.com 활용)

모니터링 기간
2024년 5월 8일 -
2024년 5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는 흔히 우리 시대의 공론장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는 익명의 개인들이 원하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개방적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보다 차별과 혐오를 양산하는 주요 기제가 되고 있었다.

혐오의 일상화 속 강화된 젠더 폭력

가장 큰 문제는 혐오범죄의 희화화와 페미사이드¹⁾의 정당화였다. 이는 한국여성의전화 통계²⁾를 고려해볼 때,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을 언급하며 여성들을 학살하자는 혐오표현에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맥락을 제공한다. 동시에 정절 이데올로기의 차별적 적용과 조롱은 기본이었다. 가령, 워킹 홀리데이나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여성 등을 순결하지 않은 존재로 멸시하고 여성의 몸과 성을 규제하려는 댓글이 많았다. 반면 남성의 성욕은 조절 불가능한 것이기에 성매매, 해외경험이 필요하다는 양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평등하고 다양하며 포용적인 공론장을 위해

현재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소수의 열혈 활동과 이에 동조하는 다수에 의해 갈라치기가 주도되는 가운데, 나머지 이용자들의 위축과 운영진의 방치 속에 대항 표현이 등장하더라도 사장되고 있었다. 특히 각자도생 경쟁사회, 자원의 수도권 과밀화라는 사회문제가 중첩된 상황에서 혐오표현은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라는 사실에 그 심각성이 있었다. 이에 평등한 공론장으로 온라인 커뮤니티가 기능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으로 윤리적 규정들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혐오 효과를 타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만연한 혐오표현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반대, 비동의 강간죄 도입 철회 등 특정 집단을 향한 배제로 결집되어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질문 역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1) 세계보건기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사건을 '페미사이드'라고 정의한다

2) 2023년 기준, 1명의 여성은 19시간마다 '친밀한 남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위협을 받았고, 4일마다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했는데, 이는 언론에 보도된 건수만 집계한 것이다. <2023년 분노의 게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 및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의한 여성살해 분석>

단 7일만에 속부터 꼭 차오르는 밀도 탄력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감사합니다

2024년 4월-2024년 5월

특별 후원



- 국제협력사업 지복임
- 스포츠센터 평생체육위원회
- 장학금 조연신

일반 후원



강서현	고려옥	고선훤	구영숙	권혜진	기영숙	김미자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윤희	김인복	김정순	김현경
김 형	민혜경	박숙자	박위자	박정희	박제희	박진선
박혜리	배은경	배정미	서해영	석성옥	송순옥	심영자
양수경	오준호	우정현	우주훈	우훈희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이애진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은숙	이재림
이종미	이행자	이홍자	임종현	장민경	장수자	정문옥
정석용	정수경	정승원	정은숙	조소영	조연신	조종남
지복임	채서은	채재호	최경자	최 봄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월요까페					

주식회사 아키엘로건축사사무소

재능 기부



- 최혜란(홍보출판팀 위원)
- 2024년 5 · 6월 회보 '예술과 삶' 칼럼 기고

복멘토링 후원



구영숙	김민아	김상희	김선자	김성연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	김한나	김혜경	남은희	박나영	박미소	박소현
박용천	박진선	박채원	배은경	손예림	손지용	송태언
신여명	신정숙	심영자	양진화	예정원	우영숙	이연배
이윤선	이재림	이푸른하	이현미	이희정	임재연	정모아
조민형	조연신	최동수	최 봄	최정우	최한나	최혜영
한혜영	월요까페	창진				

월 CMS 후원



감윤우	감윤익	강경아	강경희	강금미	강동우	강명숙
강문숙	강미영	강민아	강선경	강신범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유민	강윤정	강은영	강일훈	강주현	강창석
강하자	강형식	경규연	계숙화	고경혜	고동연	고선자
고선훤	고선훤	고성희	고은경	고은비	고은화	고은희
고인미	고재옥	고흥애	공명주	공민희	공우재	곽동윤
곽민정	곽지영	구다은	구미영	구수영	구오영	구지영
권경자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범찬	권부남	권성준
권순철	권예현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정희	권지혜

권태진	권혁준	권현준	권형하	권혜진	권희원	권희정
길명경	길소연	길종선	김경미	김경미	김경배	김경삼
김경선	김경옥	김경원	김경일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관옥	김관채	김귀숙	김규진	김금자	김기연	김기호
김나영	김남미	김다임	김대영	김대진	김도근	김동은
김동형	김두희	김말녀	김명수	김명후	김문자	김문휘
김미경	김미경	김미선	김미재	김미정	김미정	김미현
김민경	김민기	김민성	김민숙	김민정	김민지	김배옥
김병수	김병호	김보라	김봉근	김봉희	김상권	김석대
김선경	김선덕	김선미	김선영	김선화	김선희	김성민
김성민	김성애	김성준	김성혜	김성희	김세진	김소망
김소희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현	김수호	김순경
김순남	김순자	김순자	김승재	김시아	김시은	김애숙
김양미	김양선	김양숙	김예스터	김연경	김연숙	김연순
김연희	김영숙	김영식	김영심	김영옥	김영해	김예지
김예지	김옥민	김용관	김용숙	김용숙	김용오	김용임
김우인	김원경	김원경	김유성	김유애	김유진	김윤경
김윤나	김윤종	김윤지	김윤진	김윤희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주	김은혜	김은희	김은희	김익동
김인하	김자희	김재경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윤
김재진	김재현	김정님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애	김정연	김정옥	김정완	김정자	김정철	김정환
김종문	김종숙	김종운	김준희	김지나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호	김지희	김진서	김진숙	김진숙	김진아	김진향
김진호	김창섭	김철민	김철주	김춘자	김충현	김치백
김태경	김태식	김태연	김태준	김태준	김태한	김태희
김통범	김해정	김행미	김향점	김현경	김현경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중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형모	김형순	김형순	김형순	김형태
김혜경	김혜성	김혜실	김혜양	김혜진	김홍우	김화숙
김효숙	김효은	김희열	김희영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나미정	나선화	남궁정	남궁진
남궁혜정	남상택	남연정	남윤경	남희숙	노남례	노병균
노인화	노일권	노정자	노혜환	동지현	류미현	류종현
류 혁	마초희	맹은주	명정신	목동진	문경혜	문다영
문미현	문신환	문응식	문자영	문현숙	문형규	문형진
문혜경	민경술	민동성	민선기	민수홍	민여진	민정애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강규	박경미	박경옥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광택	박구자	박근화	박노영
박명윤	박문성	박미영	박미용	박병주	박상수	박상정
박선미	박선주	박성희	박소윤	박소현	박소현	박송아
박순예	박순주	박시윤	박신자	박양신	박영미	박외정
박용진	박운용	박윤경	박윤슬	박은영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지현	박정연	박정우	박정원	박정희	박종천
박종화	박종희	박주영	박지연	박지훈	박 진	박진용
박진화	박찬인	박초순	박춘필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 현	박현숙	박현숙	박혜리	박혜숙	박혜자	박혜진
박휴영	박희봉	방윤옥	방윤우	방혜영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영우	배은경	배은진	배정미	배종우
배진영	배호성	백명숙	백옥선	백은선	백은엽	백정금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봉진영	서근배
서락원	서명수	서미화	서빛나	서영미	서예석	서옥덕
서은경	서정연	서정희	서지영	서해원	서현옥	석상화
석성옥	석영미	성경란	성덕화	성연석	성운수	성지윤
성지윤	성지희	성진원	성호숙	손승혜	손지용	송경진
송길례	송상경	송세은	송옥의	송윤주	송이라	송재임
송정민	송종우	송창은	송태언	송하윤	송혜수	신경자
신동선	신민자	신상용	신상우	신승우	신연식	신용자
신정옥	신지숙	신지원	신지윤	신지혜	신찬용	신총섭
신현미	신화옥	심경호	심정자	심혜영	안성포	안성훈
안순자	안승계	안영운	안영호	안유진	안윤희	안정국
안정복	안정희	안진희	안진희	안태건	안혜리	양세진
양수정	양영순	양종숙	양진영	양현옥	엄수길	여명진
염문철	염미행	염용희	염은애	염지수	염지희	오경아
오미영	오성아	오소연	오연아	오영아	오은주	오재준
오점희	오지영	온기석	왕정환	윤희희	우수경	우승현
우재하	우현주	우훈희	원경애	원연정	원유철	위정선
유규진	유남석	유남실	유덕호	유동미	유미나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 숙	유순희	유승연	유예목	유은경
유은희	유재미	유재현	유정선	유정순	유정한	유주빈
유현숙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윤광미	윤문노	윤방현
윤상은	윤서희	윤 선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소영	윤순민	윤장범	윤재숙	윤재혁	윤정향	윤정화
윤정희	윤지영	윤지완	윤 혁	윤형석	윤혜섭	윤혜진
윤희숙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	이건우	이건우	이건학

“개인주의자에게도 공동체는 필요해”

잠시 내 이야기를 하자면, 자식을 독립적인 아이로 키우겠다는 어머니의 교육방침 아래에서 그 뜻대로 무럭무럭 자라난 20대 여성이다. 다만 그 악발이 너무 썩든 탓일까,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진 나는 ‘가족이니까’ 억지로 참여하거나 희생해야 하는 것들에 반발하기 시작했고 부모님은 그런 나의 모습에 썩 섭섭해하시기도 했다(다행히 지금은 자식의 성향을 납득하신 듯하다). 나의 이런 성향은 학교나 친구들과 사이에 있을 때도 계속되었다. 누군가 통일된 행동이나 의견을 강요할 때마다 불편했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피곤할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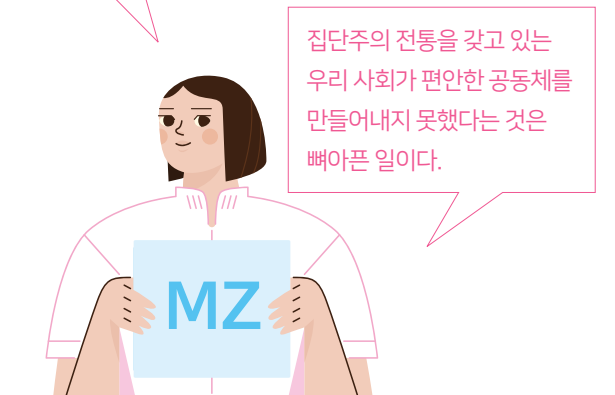
신기하게도 내 또래들과 만나면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미디어에서 ‘MZ’에 대한 묘사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 가령 까다롭고 개인적이며,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을 하는 모습이라던가 - 일반화는 선부르지만 각 세대는 그 시대적 특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로서는 우리 세대가 분명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고 느꼈다. 그 공통점은 바로 개인주의적 문화였다.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개인주의화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소위 ‘MZ’들이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청년들은 개인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이 속해 있을 곳을 찾아다닌다. 한국 사회가 유독 유행에 민감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유행에 밝다는 건 흐름을 읽는 데 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다. 집단에 어울리기 위해,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유행을 쫓기도 한다. 계속된 평가를 마다하지 않고 집단에 소속되려고, 배제되지 않으려고 하는 처절한 노력이기도 하다. 결국 지금의 사람들에게

게 필요한 것은 소속감이 아닐까? 한때 사이버 종교가 전국적 관심사가 된 적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사이버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내심 그들의 속내를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은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제공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셨다.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종교 단체가 충분한 자리를 제공해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이 공동체의 부재로 읽혔다. 집단주의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가 편안한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뼈아픈 일이다. 동시에 개인적 가치를 우선하는 지금이야말로 발전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하게 된다. 새 시대의 개인주의자들은 과연 어떤 공동체를 그려나가야 할까.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요건은 서로가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임은 분명하다. ♡ 글 두두(활동명)

청년들은 개인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이 속해 있을 곳을 찾아다닌다

집단주의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가 편안한 공동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뼈아픈 일이다.



이경근 이경민 이경아 이경애 이경연 이경옥 이경자
이경희 이경희 이광희 이교신 이규택 이금재 이기쁨
이기현 이기화 이나경 이남연 이덕순 이돈행 이동숙
이동오 이동현 이명순 이명우 이명혜 이미진 이민석
이민선 이민정 이범재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봉주
이봉희 이상명 이상욱 이상원 이상윤 이상지 이상해
이선미 이선영 이선화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상원
이소진 이수범 이수빈 이수연 이수연 이수윤 이수진
이숙용 이순영 이순옥 이순천 이승민 이승연 이승한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자 이영진 이예은 이옥경 이웅호 이원애
이유리 이유림 이윤선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선 이은숙 이은아 이은아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혜 이은희 이은희 이은영 이재건
이재경 이재연 이재욱 이재욱 이재준 이재천 이재혁
이재혁 이정구 이정석 이정석 이정수 이정숙 이정은
이정인 이정임 이정한 이정현 이정희 이종규 이종미
이종석 이종욱 이주연 이주형 이주형 이준혜 이종자
이지범 이지선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현 이진규
이진아 이진영 이창희 이재진 이택완 이푸른하 이한기
이한성 이 행 이행남 이행자 이향숙 이현국 이현순
이현아 이현옥 이혜미 이혜영 이혜원 이혜주 이혜진
이화정 이효정 이희남 이희전 임동숙 임등자 임미령
임미영 임병일 임선미 임성준 임순화 임양수 임은유
임완철 임재연 임재영 임정화 임정훈 임준호 임중현
임지연 임지은 임지현 임춘화 임현주 임현희 임혜연
임호환 임희진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길례 장석귀
장수용 장순복 장예선 장용익 장주연 장철승 장현주
장혜영 장 훈 전경희 전덕기 전민구 전병우 전상숙
전선희 전소영 전영삼 전영지 전윤숙 전인옥 전하라
전행욱 전현숙 전홍신 정경문 정경미 정경원 정동신
정미선 정미성 정민선 정삼미 정새와 정서진 정선덕

정선주 정선화 정선희 정세호 정소희 정수경 정승원
정승원 정승혜 정애경 정여백 정영룡 정영희 정예슬
정우연 정원화 정유리 정유진 정은주 정은하 정재훈
정정애 정종화 정종화 정준선 정지연 정지영 정지원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징자 정해윤 정현아 정현정
정현주 정혜령 정혜수 정혜승 정희주 제오복 조계연
조규성 조규영 조규원 조길수 조남익 조남임 조대신
조명희 조미선 조성미 조성미 조성진 조성채 조성환
조세환 조애자 조연신 조오영 조용선 조원식 조윤신
조윤영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조정훈 조준하
조종희 조형윤 조혜성 조혜진 조홍신 조희수 주동일
주명애 주형로 지경표 지미화 지 영 지영찬 지 인
진영선 차경희 차미연 차지혜 채송화 채재호 채지은
최광기 최기은 최명진 최명혜 최명희 최문정 최문희
최민영 최 불 최봉수 최새롬 최서래 최선미 최성현
최순자 최순태 최승민 최승아 최승환 최신지 최영실
최영주 최용운 최운영 최유나 최유평 최윤서 최윤주
최윤호 최은성 최은주 최정호 최정희 최종대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희 최현경 최현주 최혜원 최호길
최희숙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정미 하진희 하태성
하태진 한가원 한경희 한다정 한명희 한민희 한성우
한숙명 한숙희 한승연 한승연 한승희 한예성 한옥연
한완영 한용순 한윤경 한이수 한인선 한 정 한정신
한정운 한정원 한정화 한지현 한진숙 한찬호 한혜정
허미란 허선영 허영록 허영숙 허혜정 현명금 현은순
홍경화 홍선미 홍수연 홍승연 홍윤서 홍은미 홍정남
홍정혜 홍주실 홍현표 홍호성 홍희정 황경희 황명숙
황보림 황보영 황선미 황어진 황영신 황왕연 황용하
황윤희 황주혜 황지희
(주)건축사사무소빅 그린에이전시 노무법인 한승
세무회계사무소지성 스튜디오GAGA 씨에라여성의원
주식회사 제이글로리 중앙이엔씨 콤마,와인 파티인테이블
향기나무

후원 계좌

농협 317-2021-0710-9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문의 02-3705-6008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소식

박애경 명예위원

5월 24일(금) 한국효도회 2024 가정의달 기념
제30회 대한민국 효행대상 사회공헌대상 수상

강민아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5월 27일(월) 시부상

장수자 명예위원

6월 5일(수)~11일(금)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제32회 한국여성미술작가회 작품전시회

최민영 봉천종합사회복지관 대리

6월 22일 낮 12시에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결혼

황소영 봉천종합사회복지관 대리

6월 22일 낮 3시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결혼

최이권 명예회장 자손, 회관 방문



서울Y 명예회장(5·7·9·11대 회장)의 막내아들 백창익 씨가 가족
과 함께 6월 11일 서울Y 회관을 방문했다. 현재 이사실로 사
용되고 있는 '최이권 명예회장 기념실'을 둘러보고, 최 명예회
장을 모티브로 한 자수작품 「씨 뿌리는 사람」 앞에서 박영숙·
최수경·전현숙 전 사무총장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기념했다.

2024 시민건기축제

후원 감사합니다

김양선	김 형	CJ제일제당
박정희	배은경	LG전자
백향덕	신현미	동서식품
이경연	이유림	롯데웰푸드
이지선	이희전	매일유업
전현숙	정선덕	삼성전자
정수경	조연신	서울우유협동조합
최 봄	최한나	스타벅스 코리아
한혜영	모두회	오뚜기
강남청소년수련관위원회		유한킴벌리
국제협력위원회		잇더컴퍼니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위원회		(주)LG생활건강
누리봄위원회		(주)농심
명예위원 모임		(주)오토젠
봉천종합사회복지관위원회		(주)주영이엔씨
소비자환경위원회		코베아
여성참여위원회		하나카드주식회사
역대이사모임(이행자 위원장)		
청소년위원회		
평생체육위원회		



12시간 후*에도 탄탄한 피부 힘
진생 안티에이징

수려한 진생 에센스^{AD}





이효덕

독립운동가·여성운동가
전주Y 설립자(1895-1978)

1895년 평안남도 용강에서 태어난 이효덕 선생은
부모를 따라 어려서부터 신앙을 갖게 되었으며
어머니의 교육열로 7세 때부터 교회 사택에서 살면서 신식교육을 받았다.
1908년부터는 평양 송의여학교에 다니며
이때부터 애국애족사상을 인생의 지표로 삼게 되었다.
졸업 후 1913-14년에는 모교인 송의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며
선배교사 황신덕과 한국 최초 여성항일비밀결사단체 '송죽회'를 조직했다.

3·1운동 당시 만세시위를 이끌다 수감되기도 했던 선생은
어머니의 죽음, 오빠의 독립운동으로 인한 가정의 고초,
자신의 병으로 고생하던 중 신앙을 새로이 발견하고
감리교협성여자신학교에 입학했다.
1924년 졸업 후에는 태화여자관 성경학교 교감으로 활동하고,
1927년부터 1929년까지는 전주기전여학교 사감과 교사로 재직하며
전주YWCA를 조직하고 초대 회장(연합회 정가임 이전)으로 일했다.

1929년부터는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순회총무를 맡아
금주·금연을 위한 강연회와 가두계몽에 힘쓰며 월간지 「절제」를 창간했다.
절제회 활동 이후에는 수표교교회와 동대문교회에서 전도사로 시무했고
화양교회와 청량리교회를 개척하기도 했다.
1956년부터 10년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성교회연합회 부녀국 총무로 활동했으며
평생을 독신으로 목회자이자 운동가로 헌신한 이효덕 선생은
서울 감리교 안식관에서 여생을 보내다 1978년 소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선생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